



# 신용을 토대로 고도

## 고도 정보화 사회를 향하여

정보고속도로와 멀티미디어는 21세기를 향한 꿈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정보통신 산업의 양대 산맥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벤처기업들도 떠나할 것없이 정보통신 업체를 세우고 있어서 마치 정보통신업을 하지 않으면 21세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야단법석들이다. 30대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업체를 갖지 않은 기업이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보통신 관련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고속도로는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이 2010년까지 구축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거국적 노력은 각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 3차 세계전쟁(지적전쟁)을 위한 전력을 가다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 3월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초로한 양방향적인 영상, 음성, 데이터의 전송매체라고 정의되는 멀티미디어는 21세기의 디지털 골드 러시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하고 다시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기술로 컴퓨터기술, 통신기술, 네트워크기술이 총망라되기 때문에 정보고속도로와 함께 고도 정보화사회를 이끌고 가는 양바퀴이다.

## 열린사회, 열린정보

이처럼 사통팔달로 중형무진하게 돌아다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개인정보의 보호인데, 현재 개인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할 때부터 제공되기 시작하는 개인정보는 특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완전히 발가벗겨져 버리고 만다. 구좌를 개설할 때는 직장명이나 집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가 요구되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규모나 재산상태는 물론 담보물건 확보를 위한 신용상태와 보증인 등 이런저런 정보들이 날날이 밝혀져야만 대출 심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적나라한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는 물론 스포츠클럽 카드나 무슨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이름과 주소 연락처만 기입해서 되는 일은 없다. 무슨 심사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질문 항목도 다양하다. 마치 수사관들이 물어 보는 것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비로소 카드 한 장을 발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보안이 허술해지고 마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특정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누출된 결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에까지 영향을 미쳐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들을 여러 번 접하게 되고 보니,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어느덧 우리들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고 생각되니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밤잠을 제대로 못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정보의 공유화

노하우(know-how)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노웨어(know-where) 시대이다. 즉,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다. 매일매일 아니 매시간 쏟아지는 정보를 전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 이제는 누구한테 가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어디로 찾아가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것이 노웨어



여인갑/한국지멘스피라미드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정보처리기술사

#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자

(know-where)이다.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는 애써서 조사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보관된 정보를 가지고 기업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찾아줄 수 있을까' 하는 찾는 방법 하나만으로도 많은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도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를 각자가 보유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얼마나 낭비인가를 알 수 있다. 은행거래를 서너군데 하고 있으면 각 은행마다 중복된 정보를 보관하느라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들이고 있다. 심지어는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이 다르면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중복 자료는 한군데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특히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보가 여러군데 중복되어 있으면 그만큼 최신 정보로 변경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기관끼리의 정보 공유가 손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인데도 웬일인지 말만 떠들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서로 자기가 정보를 보유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만이 갖고 있을 때 그에 따른 다른 권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 구시대 인물들의 아집 때문이라고 본다.

나한테는 없어도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시에 찾아 볼 수

있다는 편리성을 인식해야 한다. 즉 노웨어(know-where)로 만족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민주화의 척도를 정보의 공유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생활 정보의 보호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정보의 노출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 어느정도 동감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우리의 현실이다. 책임의 한계라는 문제가 대두될 때 그것을 면하려고 이 중벽을 쌓고 또 쌓고 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게 마련이다. 이 점에 특히 사생활 정보보호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무심코 제공하는 사생활 정보가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인위적으로 알아내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 외부로 노출된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버린 것이고, 정보 사냥꾼들에 의해 여러 경로로 정보가 팔려 나가게 된다.

따라서 사생활 정보의 노출은 가속화되어 빠른 속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특히 대중성이 있거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일수록 인위적으로 알아내려는 정보사냥의 표적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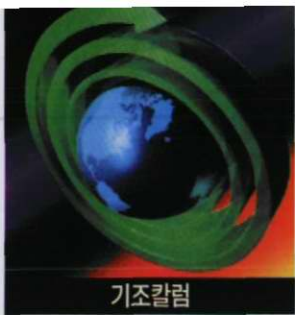
는 것이다.

우연히 노출되는 사생활 정보를 최소화 시키려는 시도중의 일례로 필자 없는 글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러 글 쓴 이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는 가명으로 된 이름만 나타나고 그 사람에 대한 일체의 정보가 없는 글들을 요즈음 많이 접하게 된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밝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창하게 과거의 학벌과 경력은 물론 시시콜콜한 감투까지 있는 것, 없는 것 되도록 많이 늘어 놓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이다.

요즈음 각종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스스로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며 둘째,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추적해 봐야 하고 셋째, 될수록 익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을 향해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로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은 사용자들을 위하여 익명자 사이트를 제공해 주어 익명으로 웹



기조칼럼

을 여행하도록 해주고 있기도 하며, 또 다른 예는 뉴스그룹에 글을 올릴 경우인데 자신의 글이 자료 소장실로 들어가 보관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 배려이다.

### 정보서비스업체의 사명역시

인위적으로 정보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막을 수 있는 첫번째 관문은 정보서비스업체의 손에 달려 있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서 정보유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유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정보의 유통은 이용자 스스로가 막아야 한다.

정보서비스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사생활 정보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보처리를 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가공하여 제 2차적인 사업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어느 특정회사 제품에 대한 고객유치에 활용하도록 제공한다면,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약회사에 제공하면 특정 제약회사는 그에 따른 상품전략이나 가격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적 사업에 재미를 본 회사가 본격적으로 본업을 바꾼 업체가 있어 경영사례로 연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루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악용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정보가 회사차원에서가 아닌 개인차원에서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인 경우에는 다양한 해커의 침입에도 대비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해커침입의 문제를 남의 집 줌도둑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큰일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심심풀이로 들어와 보다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지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려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자료를 고쳐놓거나 심지어는 다 지워버려 피해를 본 측에서 그 자료를 복구하느라 막대한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우도 우리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잖은가.

따라서 정보처리업체의 경우 고객 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커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물론, 무자격자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온라인 운영면에서도 신축성을 기해야 한다.

### 강조되는 윤리강령

정보처리전문가들이 품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제정 선포하고 모든 회원에게 엄수하도록 강요하는 최소한의 실천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 및 은밀

성을 보호한다는 것과 습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정보시스템의 활용자, 동료, 단체 및 국가와 나아가 인류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의식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굳은 결의가 엿보이는 윤리강령이다.

비단 정보처리전문가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의사로서의 윤리가 있으며,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또 회사의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제자리에 붙었다 하여 말썽을 피우는 것이 현실이다. 때로는 윤리불감증에 걸린 듯한 행동을 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즉각 시정되도록 주변에서 자꾸 일깨워 주어야 한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구할 때 지켜져야 할 윤리는 멀어져 가고 마는 것이다. 윤리는 신용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라 할 수 있다. 서로가 믿으며 마음놓고 어떠한 정보라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신용사회를 토대로 성숙되는 고도 정보화사회를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 보자. **DC**

**고침**  
본지 3월호 기조칼럼으로 소개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원고 내용중 4p 하단부에 게재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1950년대 미 육군에서 컴퓨터를 에어베이스라 하는데 착안하여 데이터베이스라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는 문장은 '.....미 육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군수물자, 병력 등의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데이터 시스템의 이름을 비행기가 많은 공군기지를 에어베이스라 하는데 착안하여 데이터베이스라 부르기.....'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